“김민석이 시대정신”, “정청래가 개혁”… 대전 달군 당권전

르포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

김민석 측, 당정 중점사업 완수 강조
정청래 측, 불리한 선거제 설계 지적
당 통합 당부하는 목소리도 많아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앞둔 17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홀 앞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왼쪽)과 김민석 후보 지지자들(오른쪽)이 응원전을 벌이고 있다. /박태홍 기자·박경수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앞둔 17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 행사장 앞은 당정일치로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는 김민석 후보 지지자와, 멈추지 않는 개혁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정청래 후보 지지자의 응원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전당대회 시작 전부터 행사장인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홀 앞 아치형 구조물 안에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김 후보 지지자 중엔 유난히 최고위원 당선권에 있는 김용 후보를 지지하는 이도 많이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장으로 보낸 화환이 등장하자 김 후보 지지자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김 후보를 응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치형 구조물 길 건너편에는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천막이 있었는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를 상징하는 노란색 바람개비를 든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고 무리 지어 춤을 추며 전당대회 분위기를 돋우었다.

김민석 후보 지지자들은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 김 후보가 대한민국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전했다.

곽 모씨는 “김민석 후보가 시대정신이고, 정청래 후보는 시대정신에 어긋난다”며 “정 후보 측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당정청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에서 올라왔다는 이 모씨는 “우리들이 봤을 때 정 후보가 1년 동안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너무 안 좋게 보인다”며 “김민석 대표가 되면 당정간 화합하고 대통령이 꿈꾸는 메가 프로젝트 등을 다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합동연설회장에서 기자와 만났던 진상문씨는 이날 대전에서도 만나 “(호남에서 김 후보가 정 후보를 크게 이기자) 그 때 다들 울었다”며 “이제 김 후보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 하셔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진 씨는 “민주당이 옛날처럼 하나로 뭉쳐서 이 대통령은 뒷받침해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은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 일할 사람은 평생 민주당을 위해 몸을 바친 정 후보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마포구에서 온 청년 이경수 씨는 정 후보 지지 이유에 대해 “다른 후보들보다 개혁 당 대표로서 당을 잘 이끌어 갈 것”이라며 “어느 상황에서나 당을 위해 몸을 바쳐 일할 사람”이라고 했다. 이 씨는 “이 대통령과 이제 발 맞춰서 밀려있던 일들이 빠르고 신속하게 이뤄져서 민주진영의 통합도 빠르게 실시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들이 빨리 처리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전당대회가 유독 선호투표제 등 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의견도 많았다.

충남 서산에서 온 황규돈 씨는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를 어긴 것이고, 김용 최고위원 후보가 나온 것도 이를 어긴 것”이라며 “왜 일반 당원들에게 당헌·당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기들은 편하게 적용하나”라고 반문했다. 황 씨는 “당헌·당규는 (당의) 헌법이다. 왜 노사모가 (전당대회에) 나왔을까. 내부 경선이니까 한 사람을 적으로 규정해서 몰아내는 것은 안 된다. 대통령도 당무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는 각 후보들이 그간 쌓아왔던 감정을 풀고 민생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송영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명선 씨는 “서로가 단합해서 당이 100년 이상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당원이 일심동체가 되면 좋겠다”며 “서로가 헐뜯지 않고 서로가 위로하고 도와주고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는 김일호 씨는 “인천에서 행사장에 일찍 왔는데, 아침부터 (지지자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라며 “이런 모습이 일반 시민들이 정치를 회피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보는데, ‘너는 김민석, 나는 정청래, 나는 송영길’하면서 어울어지게 놀면 되는데, 자꾸 ‘너 김민석이냐’, ‘너 정청래냐’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전=박태홍 기자·박경수 수습기자

pth7285@metroseoul.co.kr

‘4년 중임제’ 꺼낸 李… 野 ‘연임 포석’ 반발

“임기 단축해서라도 개헌” 언급
국힘, 연임 포기 선언 촉구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개헌 이슈는 지지율 폭락을 감추기 위한 물타기”라며 연임 포기 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개헌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헌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의장 측은 개헌안에 해당 조항을 넣을지 여부를 언급했고,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과는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여권의 해명에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며 개헌을 언급한 것이 지난 13일 알려졌다. 골프 회동에 참석했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이에 야당은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4일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지금 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하겠단다.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같은날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개헌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항쟁 헌법 전문 명기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총리 추천권·인사권 일부 국회 이양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 가능 ▲지방자치 및 국민 기본권 강화를 언급하며 “이런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다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재차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결국은 본인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라며 “4년 중임제로 가겠다는 건 5년짜리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야당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 여야 간 개헌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헌이 실제로 성사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찬성’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개헌 의제를 꺼낸 의도를 의심하는 모양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개헌 제의에 대해 “지금 저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민생이지, 주식 그리고 부동산과 같은 이슈지, 이 대통령 사법방탄을 위한 연임을 위한 개헌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꺼낸 개헌 이슈는 지지율 폭락을 감추기 위한 물타기 카드”라며 “이 대통령이 연임이 않겠다고 선언해도, 개헌 이슈가 모든 민생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靑,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북미 대화 기대”

“구체 사항 공조해 나갈 것”

청와대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북미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있는 북미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사항에 대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고,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북한의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내 관계에 비춰볼때, 저는 한국과의 연합군사연습에 미국이 참여하기로 오래전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다”고 적었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 첫날인 17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차량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정례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에 미국 대통령이 직접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UFS가 미국에 비용 부담을 안기는 데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예진 기자

민주당, ‘친명·친청’ 갈등 봉합 과제

›› 1면 ‘호남의 선택’서 계속

또한 대표 재임 시절 당정관계가 계속해서 어긋났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 후보가 대표가 되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거대 지역 공약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호남의 당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대표를 연임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별다른 당 내 경쟁자 없이 각각 77.77%와 85.4%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과 달리, 김 후보는 간신히 당 대표에 선출되며 당 내 친명 세력에 대한 거부감이 이전보다 상당히 확산됐단 점도 감지된다.

전당대회 이후 김 후보가 갈등을 이어온 친명계와 친청계 사이를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으로 통합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분당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김 후보는 선거 초반부터 정 후보를 향해 당 대표 시절 ‘자기정치의 폐해’를 저질렀다며 ‘반명(반이재명)’ 세력으로 프레임 씌워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지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 측을 겨냥해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설’을 띄우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정 후보도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돕다가 탈당한 김 후보의 이력을 문제삼으며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고 지적해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박태홍 기자